

# 민실위 보고서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발행인 : 전성관  
편집인 : 조의명  
서울 마포구 성암로 267  
전화 : 789-3883, 3886 팩스 : 782-0135  
인터넷 홈페이지 : [www.mbcunion.or.kr](http://www.mbcunion.or.kr)  
2026년 6월 22일 (월)

## 기본 저버린 선거 보도, 이대로는 안 된다

지역 행정을 책임지는 대표자를 뽑는 지방선거는 다른 어떤 선거보다도 시민들의 삶에 밀접하게 맞닿아있는 참여민주주의의 근간이다. 또한 이처럼 중요한 선거가 공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감시하고 유권자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중요한 의무이다.

민실위는 서울을 비롯한 16개 지부 공동으로 5월 6일부터 6월 2일까지 4주간 방송된 뉴스데스크의 지방선거 관련 보도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토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작성 배포한다.

### ‘기계적’ 중립 버리고 ‘선명한’ 편파로?

지방선거 본투표를 전날인 6월 2일 뉴스데스크는 30초 길이의 영상구성으로 보도를 시작했다. 특수부대가 국회를 침탈하던 12·3 내란 당시의 모습과 광장에 모인 시민들, 여유만만한 윤석열의 얼굴이 긴박하게 교차되더니, 화면 전환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 취임 선서 영상과 음성을 기점으로 분위기는 급변한다. 누리호가 힘차게 솟아오르고 트럼프가 악수를 청하며 코스피가 8000을 돌파하는 ‘희망찬 오늘’을 보여준 뒤 “이어질 미래... 우리의 선택”이라는 워딩을 표출하며 해당 영상은 마무리된다.

[6/2 ND 오프닝 영상구성 주요 장면 캡처]



해당 영상은 ‘민주당 선거 CM으로 활용해도 손색이 없을 영상과 캐치프레이즈’라는 냉소와 함께 한동안 일선 기자실의 화제가 되었다. “MBC가 이 정도로 노골적으로 할 줄은 몰랐다”는 말을 타사 동료들에게 듣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는 구성원도 있었다.

정당별 지선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나고 본격적인 선거 정국이 시작될 무렵, 박범수 뉴스룸 국장은 오전 편집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이번 선거가 어떠한 변수로 치러진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좀 유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태까지는 여당의 압도적 우위 구도로 진행이 됐다면, 지금부터 후보가 확정된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상황이 시작이 되니까, 우리가 처음에 잘 흐름을 잡아놓고 시작하지 않으면 그냥 기계적 중립 따라가는 보도가 될 수 있는데 절대 그럴 하면 안 됩니다.” - 뉴스룸 국장, 4월 27일 편집회의

취임 이래 ‘기계적 중립은 무의미하다’, ‘선명하고 강한 뉴스를 해야 한다’는 기조를 수없이 밝혀왔고 또 뉴스에 투영해 온 국장이기에 새삼스러운 발언은 아니다. 하지만 최소한 선거 기간만큼은, 기계적 중립에 가까울 정도의 엄격한 객관성과 중립성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사 제작 준칙은 적시하고 있다.

### 2. 선거방송 제작의 기본 원칙

가. 불편부당하고 객관적인 보도

- 1) 선거를 앞두고 독립적인 보도·제작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외압을 단호히 배격한다.
- 2)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하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한다.
- 3) 후보자와 정당에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내용을 균형 있게 다루기 위해 노력한다.
- 4) 선거와 관련된 사실과 정보를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보도하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보도해 유권자를 혼동케 하지 않는다.

박 국장은 이번 선거의 ‘변수’로 ‘윤 어게인-내란 동조 세력’의 복귀 시도와 그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수 세력 내부의 힘싸움을 지목했고, 선거 기간 내내 MBC뉴스는 관련 뉴스를 지속적으로 반복 보도했다.

[여야 선거 관련 동정 보도 제목 비교(ND)]

	여권	야권
5/10	민주당 '국가 정상화 선대위 출범'.. 본격 선거 대비로	국힘 총동원 박민식 vs 의원 제로 한 동훈.. 분열된 보수?
5/24	사전투표 D-5, 정청래 호남 찾아 "대통령 밀어달라"..울산 단일화 진통	"스벅 들고 투표장 가자" 외친 장동혁..당내선 "장동혁 리스크" 쓴소리
5/29	민주당 "이번 선거의 의미는 이재명 정부 뒷받침과 내란 심판"	국민의힘 '윤어게인', '박어게인' 이어 'MB어게인'?..보수 결집 총동원령
5/31	민주당, 전남·충청 찾아 막바지 총력전.."李대통령 위해 민주당 뽑아야"	국힘 선대위원장은 이명박·박근혜?..국힘, 보수 결집 총력전

선거 운동 동향을 여-야 리포트 한 꼭지씩 전하는 날에도, 여당에 대해서는 비교적 평이하게 벌어졌던 일들을 전달한 반면, 야권 관련 소식은 제목부터 날을 세우고 ‘분열’, ‘논란’을 강조하는 패턴이 수차례 반복됐다. 선거 기간이라도 비판할 부분이 있다면 비판할 수 있다. 차라리 기행에 가까웠던 야당 대표의 스타벅스 옹호 발언도, 이미 법과 역사의 심판을 받았던 전직 대통령들이 부끄러움 없이 선거판 전면에 등장한 것도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었다. 다만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비판할 부분은 비판하되, 유세나 공약처럼 유권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때는 최대한 공정하게 전달했어야 한다.

일부 논란에 대해서는 비판의 칼날을 거둬들인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선거 기간 대통령이 지방 일정을 소화할 때마다 야당은 ‘선거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청와대와 여당은 ‘선거 기간에는 대통령이 할 일도 하지 말라는 뜻이냐’며 일축했다.

[5/27 대통령 부산 방문 3사 리포트 비교]

M	K	S
 <p>후, '바다의 날' 부산서 '해양수도권 육성'</p>	 <p>부산에서 세계로, 바다에서 미래</p>	 <p>연이틀 부산 전통시장 방문, 국힘 '대동권선거'</p>
<p>해양수산부 부산시대 개막을 기념해 부산에서 열린 제31회 바다의 날 기념식.</p> <p>21일간의 원양 항해 실습을 마친 해양대 학생들의 귀향 보고가 이어집니다.</p> <p>[한나라호 실습생 대표] "실습을 무사히 마치고 한국에 입항하였습니다. 대통령님께 경례!"</p> <p>국내 해운 산업 발전에 기여한 해운 경영인들에게 훈·포장을 수여한 이 대통령은, 바다가 단순한 물류 공간을 넘어 국가의 생존과 미래를 좌우하는 최전선이 됐으며, 부산과 동남권을 중심으로 한 '남부 해양수도권' 구상을 제시했습니다.</p> <p>[이재명 대통령] "진정한 해양 강국의 비전을 바로 이곳,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에서 실현할 것입니다."</p> <p>특히 항만과 공항, 철도와 도로망을 연결하는 광역 물류체계를 구축하고, 남해안 전역을 해양 관광벨트로 묶어 세계와 경쟁하는 '해양경</p>	<p>이재명 대통령이 푸른색 넥타이를 매고 '바다의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p> <p>[이재명 대통령] "꿈과 미래를 상징하는 푸른색으로 좀 맞춰봤는데 좀 어떻게 어울리니까?"</p> <p>부산이 정치적 고향이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해양강국' 꿈을, 이번 정부가 이루겠다 뜻을 밝혔습니다.</p> <p>부산을 '해양수도'로, 동남권을 '해양수도권'으로 키우겠다고 했고, 해수부에 이어 기업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 의지도 전했습니다.</p> <p>[이재명 대통령]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을 가능성과 기회가 넘치는 새로운 경제권으로 연결하겠습니다."</p> <p>연이틀 부산 전통시장도 찾아 시민들과 인사하고, 시장에서 식사했습니다.</p> <p>[시민] "진짜 영광입니다. 우리 시장이..."</p>	<p>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오늘 낮, 부산 영도구 남항시장을 찾았습니다.</p> <p>[이재명 대통령] "많이 파세요."</p> <p>채소를 직접 구매하기도 하고,</p> <p>[김혜경 여사] "민들레는 얼마예요, 이거 한 바구니에?"</p> <p>상인들은 물론,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 악수하고, '셀카'를 찍기도 했습니다.</p> <p>이 대통령 부부는 어제 저녁엔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상인과 시민들을 만났습니다.</p> <p>이틀 연속 이어진 이 대통령의 부산 전통시장 방문 등에 대해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으로 "부산 여인이 뒤집히니 대놓고 관련 선거를 하고 있다"라며 비난했고, 장동혁 대표는 SNS에서 "선거가 많이 급한지 전국 시장 투어 중"이라며 "서소문 고가 붐비 사고가 난 어제 '회 파티'를 벌였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p>

<p>제권'으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p> <p>기념식 뒤에는 부산 남항시장을 둘러 시민들을 만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p> <p>[이재명 대통령] "좀 도움이 되어야 될텐데..."</p> <p>이 대통령은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p> <p>한편, 이 대통령은 다음 달 8일, 청와대에서 취임 1주년 대국민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p> <p>취임 30일과 백일, 신년 기자회견에 이은 네 번째 기자회견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지난 1년을 돌아보고, 국정 2년 차의 비전과 주요 과제를 밝힐 예정입니다.</p>	<p>[이재명 대통령] "좀 도움이 되어야 할 텐데..."</p> <p>선거 일주일 전, '승부처' 부산 발전 청사진을 내놓고, 시민들 만나는 행보에, 야당은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습니다.</p> <p>[박성훈/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공소 취소 특검법' 동력이 약화될까 봐, 대통령 권한과 국정을 선거에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p> <p>장동혁 선대위원장은 "선거가 급한지 전국 시장 투어 중"이라며 "서소문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시장에서 '회 파티'를 벌였다"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p>	<p>청와대는 국정에 꼭 필요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며 이에 수반되는 현장 소통 행보일 뿐이란 입장입니다.</p> <p>이 대통령은 전통시장 방문 전후로 부산에서 열린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는데, 이 기념식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취임 첫해에 찾았던 행사라는 겁니다.</p> <p>이 대통령은 오늘 기념식에서 글로벌 통상질서와 공급망의 재편 속에서 바다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으며 동남권을 '해양수도권'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p> <p>[이재명 대통령] "국민주권정부는 김영삼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해양강국 대한민국'으로의 힘찬 도약을 앞당길 것입니다."</p> <p>해운과 항만사업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해운 관련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 투자 공사까지 집적한 '해양클러스터'를 완성하겠다고 이 대통령은 약속했습니다.</p>
--	---	--

KBS처럼 대통령 일정과 야권의 반발을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시청자를 위한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SBS 보도처럼 비판과 재반론을 충분히 전달하고, 타당성을 따져보는 대안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비판의 목소리 자체를 한 줄도 기록하지 않는 길을 선택했다. 때로는 이를 넘어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5/15 ND 윤석열은 '민생행보' 이재명은 '선거운동'?]

 <p>시장방문이 선거 개입?..尹, 아예 후보와 동행</p>	<p>24차례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열고 그 지역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을 대통령이 직접 읊기까지 했습니다.</p> <p>... 선거개입이라는 지적에 당시 국민의힘은 "오직 민생을 챙기겠다는 일념 하나로 현장을 찾은 것"이라며 "트집 잡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p>
---	--

차라리 관련선거에 가까웠던 지난 지선과 총선 당시 윤석열의 행태를 생각하면 이제 와서 목소리를 높이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동시에 당시 MBC뉴스가 해당 사안을 얼마나 날카롭게 꼬집어 왔는지를 돌이켜 보면, 과연 지금 우리 뉴스의 모습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서 얼마나 떼뺄 수 있을지 의문이다.

[22대 총선 윤석열 관련선거 주요 비판 보도(ND)]

2024/2/16	대통령의 지방 순회 '민생토론회'..선거 앞두고 '공약 발표장' 지적
2024/3/4	관련 선거 논란에도..윤 대통령 "대구에 혁명적 지원"
2024/3/7	<p>공약남발 민생토론회?..여당 선대본부장이냐</p> <p>...민생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토론회는 오늘로 18번째지만, 지역 공약 발표행사장처럼 활용되면서 '대통령이 여당의 선거대책본부장이냐'는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p> <p>정작 민생은 사과 한 알이 금값처럼 비싸서 사 먹을 수 없다고 호소하지만 민생토론회에선 들을 수 없습니다.</p> <p>지역을 돌면서 대통령이 제시하는 공약들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도 않았습니니다.</p> <p>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도 있고 민간기업들의 투자에 기대야 하는 것도 있지만, 대통령은 시원하게 추진을 외치고 있습니다...</p>

**선거방송제작준칙 3. 바. 2)**

대통령이나 정부 관료가 공개적으로 발표·지시하는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해 보도할 때는,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선심성 의도가 아닐지 경계해야 한다.

민실위가 모니터링을 실시한 4주 동안 뉴스데스크(수도권 큐시트 기준)가 보도한 지방선거·재보궐 관련 뉴스는 총 118건으로, JTBC(170)에는 크게 못미쳤고 SBS(126), KBS(101)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란 전쟁, 삼전노조 파업 등 굵직한 비선거 이슈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해야겠지만, 수적으로 타사 보도를 압도했던 최근 몇 차례 선거 기간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이었다. 본투표 보름 전이자 공식 선거운동 전날인 5월 20일에는 아예 선거 관련 보도를 메인뉴스에 한 꼭지도 실지 않았다.

**[5/20 ND 큐시트(서울)]**

1		'파업 하루 전'·노동부 장관 직접 중재로 삼전 노사 막판 협상
2		"적자 사업부도 성과급 줘야 하나?"·사흘 끝장 교섭도 못 넘은 벽
3	A1	결렬되자마자 서로 손가락질 "사측 양보 안 해"·노조 무리한 요구
4		라인은 돌아가도 '불량품' 속출·'고객사 이탈할까' 전전긍긍
5		"내 몫 왜 나눠줘야 하나"·파업 하루 앞 노조 내부 갈등 '눈덩이'
6		<b>삼전 노조에 이 대통령 "적정한 선이 있다·이해되지 않아" 직격</b>
7		긴급조정권 발동되면?·경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노동계 반발 우려
8		협상 결렬 소식에 주가 '수직하락'·코스피 한때 7천 선도 위태
9	A2	파업 위기 후폭풍?·"중국 반도체주 급등", "일본 기업 반사 이익"
10		'더 많은 성과급' 요구에 사라진 사회적 기여
11		삼전 노조, 국가 경제 혼돈 한 달·여론도, 정부도 발 벗고 나섰지만
12		저녁 교대는 오후 10시·파업 전 마지막 근무되나?
13		스타벅스 본사 "철저히 조사 중"·브랜드 훼손 책임 묻나?
14		광주에서 돈 벌면서 5.18 조롱하나?·정용진 고발
15		"정용진부터 깊이 반성해야"·박종철 유족의 회초리
16	B	<b>이 대통령, 5.18 마케팅에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중요한 건 상식"</b>
17		민주당, 스타벅스 출입 금지령·침묵하던 국힘 "잘못된 행동"
18		"나도 스벅 가야지" 국민의힘 후보 결국 사과·그런데 해명이?
19		'탱크데이' 이어 노 전 대통령 희화화 '523 공연'·조롱·혐오 문화 어쩌나
20		GTX 철근 누락 알고도 15번 만나 '침묵'·고의적으로 은폐?
21		'제대로 보고' 서울시 주장에 국토부장관 "숨은 그림 찾기, 협약 위반"
22		오세훈 측, 'GTX 철근 누락' 관련 MBC 고발·"입틀막" 반발
23	C	"한국 유조선, 통행료 없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남은 선박은?
24		<b>이 대통령, 우리 국민 구금에 이스라엘 직격 "비인도적, 비상식적"</b>
25		촉법에 끌어줬더니·일주일 만에 또 훔친 차로 질주

큰 이슈가 많은 날이라 부득이하게 자리가 없었다는 것이 당시 편집부의 말이다. 그런데 큐시트를 살펴보면, 25꼭지 4개의 블록 가운데 첫 두 블록이 삼성전자 파업 이슈를 다루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모든 블록에 '대통령 말씀' 리포트가 들어가 있다. 국무회의 자리에서 현안에 대해 한 발언을 조각 조각 쪼개, 단신도 아닌 개별 리포트 세 개로 처리한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편집 방식이다. 해당 현안과 관련된 구체적 정책을 내놓은 것도 아니고, 촌평에 가까운 워딩에 얼마나 큰 뉴스 가치가 있었기에 선거 보도를 포기하고 큐시트에 포함시켰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해당 편집 방향에 대한 민실위의 문제제기에 대해 박 국장은 "선택과 집중"이라며 "이날 시청률이 잘 나왔다"고 답했다. 실제로 해당 날짜 뉴스데스크 전국 시청률은 전날 대비 0.6%p 상승했다. 민실위는 시청률 0.6%p 상승을 위해 해야 할 보도를 하지 않고 할 필요 없는 보도를 하는 것보다는, 그만큼의 시청률 하락을 감수하는 것이 우리 조직에 장기적으로 이로울 것이라 판단한다.

**'혹할 뉴스' 찾다가 놓쳐버린 가치**

"재미있는 거라든가 뭐 어떤 판세라든가 이런 부분들, 시청자들의 관점에서 이렇게 혹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많이 발제해서 직전까지 집중적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 뉴스룸 국장, 5월 29일 편집회의

올해 초를 기점으로 MBC 뉴스의 시청률은 눈에 띄게 하락하는 추세다. 보도 수뇌부 역시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국장이 공개석상에서 노골적으로 현장에 '재미있는', '혹할 수 있는' 아이템을 요구하는 동안, 덜 자극적이지만 유권자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정보를 담은 뉴스들은 큐시트에서 실종됐다.

모니터링 기간 4주간 우리 메인뉴스에 보도된 공약 분석은 단 두 건에 불과했다. 두 건 모두 서울시장 후보 관련으로 경기, 인천 지자체장 선거는 철저히 관심을 두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교육감 선거 관련해서도 한 보수 성향 후보의 막말 이슈 외에는 선거기간 내내 한 번도 다루지 않았다. 취재 인력과 전문성의 한계가 있다면 타사처럼 외부 학술단체와 협약을 맺고 체계적으로 공약을 검증한다거나, 지역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TF를 꾸리고 공동 기획을 하는 등의 고민이 필요했을텐데도, 우리 뉴스 조직에서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기획성 보도도 빈약했다.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민심르포> 정도가 눈에 띄었지만, 이마저도 접전지와 화제성 높은 재보궐 선거구에 집중됐다. 군소 후보들을 조명한 5월 29일 보도는 거대 양당이 놓친 사각지대를 대변하는 청년·여성 등을 다룬 점에서 호평을 받았지만 방송 시점이 사전투표 개시 뒤여서 아쉽게 느껴졌고, 무투표 당선 문제를 다룬 5월 15일 <선거 뭐하니> 코너는 제도적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지적이 그만큼 별도 꼭지로 다뤘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모니터링단 내부 의견이 나왔다.

**선거방송제작준칙 2. 나.**

1) 선거방송은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이 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권자가 제기하는 의제를 중심으로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에 대해 검증하며, 유권자가 필요로 하는 정책이 선거 의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선거방송은 토론과 인터뷰를 통해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과 비전을 충분히 전달하며, 전문가와 시민들이 정당과 후보자에게 질문할 기회를 제공한다.

3) 선거방송은 경마식 보도를 지양하고 공약 정책 및 후보자의 자질을 객관적으로 검증 보도하여 공정한 정책 경쟁을 유도한다.

본사 보도가 소홀히 한 유권자 정보제공의 의무를 보완해 준 것은 지역사 선거 보도였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속기 빅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유권자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실적에 대해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 부산MBC의 <6만개의 문장> 연속 보도, 후보들의 선거유세 현장을 따라 민심의 목소리와 후보별 차별성, 공약까지 생동감있게 녹여낸

